

‘불심’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사찰

주요 사찰 순례기에서 사찰 내부 탐구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서점가에는 사찰 방문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줄 일종의 ‘사찰 안내서’들이 기획 전시돼 눈길을 끈다.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사찰안내서는 10여종에 이른다. 이들 책은 대체로 전국의 주요 사찰을 탐방 순례한 기록을 담은 ‘순례기’와 사찰 안팎의 요소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관찰기’로 대별된다.

순례기 형태의 책으로 가장 최근에 출간된 《명찰》(한국문원)은 ‘전국유명사찰 순례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계룡산 갑사로부터 지리산 화엄사까지 전국에 있는 주요 사찰 50곳을 소개한다. 무수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순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유산순례가 돼야 한다는 것이 편집자의 기획의도. 각 사찰의 창건내력과 유래, 전설, 사찰에 얽힌 역사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보·보물들을 35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유명사찰 순례기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인 최완수씨가 펴낸 《명찰순례》(대원사)는 사찰을 통해 우리 역사의 흐름과 문화적 특성들을 읽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승풍진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송광사, 보조국사의 혁신사상과 당시 집권세력인 무신정권의 관계를 살핀 것은 그 좋은 예다. 조선일보에 같은 제목으로 연재했던 순례기

를 모았는데 건축, 조각, 시문서화, 역사 등 저자의 해박하고 폭넓은 지식이 돋보이는 책이다.

“불국사를 외로운 사람이 찾아가면 그는 불국사를 전부 가질 수 있고 불국사는 그런 자유를 그에게 준다.” 지난 87년에 출간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고은 시인의 《절을 찾아서》(책세상)는 구도와 탐미를 향한 방랑의 흔적이다.

최근 17쇄를 펴낸 이 책은 전국 60여군데 사찰을 두루 살핀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시인 특유의 서정 넘치는 문장으로 밝혀낸다. 《한국의 사찰》(부다가야)은 대한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우리나라 주요 사찰의 순례기를 모은 책이다.

풀 환포기, 돌맹이 하나도 인연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게 불가(佛家)의 가르침이고 보면 사찰의 기왓장 하나도 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성싶다.

절 밖의 장승과 부도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상이 있고 까마득한 계단 위에 높다랗게 솟아 있는 대웅보전에 이르기까지 절안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어떤 의미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알려주는 책도 적잖게 나와 있다.

《절로 가는 길》(천명일 지음, 대한기획출판부)은 절의 구조와 형태가 불교의 우주관에 맞게끔 체계화되어 있으며 구도자가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임을 알려준다. 일주문은 수미산에 오르는



선운사 대웅보전(보물 제290호)과 석탑. (《명찰》 중)

문이며 그 밑으로는 인간세상과 축생, 아귀, 지옥의 삼악도가 있다.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쯤에 해당하는 것이고 육계, 색계, 수색계의 삼계를 지나 28천을 지나면 나오는 해탈문은 절에서는 불이문이다. 이 문만 지나면 보전인 대웅전이 나온다.

일주문에서 부처 한가운데까지

《절로 가는 마음》(책만드는 집)은 40년간 절짓는 일에 신앙처럼 매달려온 목수 신영훈씨가 들려주는 독특한 ‘절’ 이야기다. 절밖에서 서성거리기는 하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서성거리임이고 따라서 절의 건축이나 조형물,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애정도 남다르다.

1권 ‘한국의 사찰과 조형문화’에서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절의 건축과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2권 ‘절 짓는 사람들, 절간이야기’에서는 산신각, 지장전, 극

락전 같은 여러 전각과 스님들이 살고 있는 후원과 여러건물들 즉 무설전, 조사전, 국사전 등을 살핀 이야기다. 절짓는 일에 신명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교보문고)나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전영한 지음, 전원문화사) 등도 사찰의 초입부터 부처님의 한가운데까지 절의 구석구석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안동불교대학 교수인 권영한씨가 쓴 또다른 책인 《재미있는 우리 사찰의 벽화 이야기》(전원문화사)는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화들의 상징적 의미를 300여점의 컬러사진과 더불어 해설한 책이다. 석가모니 일대기, 부모은중경, 지장보살과 지옥, 심우도(尋牛圖), 십이지신 등을 주요 주제로 한 사찰 벽화들이 지니는 의미와 역사를 문헌연구와 스님들의 자문을 얻어 해설했다.

—박남정 기자

주요취급간행물

신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의
시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의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의 다수
패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의
기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의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02) 735-5401/3
- FAX주문: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